



물은 미래의 자원

(中) 새는 수돗물을 줄이자

전남 수돗물 25%가 '땅속으로'

열악한 재정 탓 노후관 교체 어려움 겪어 수자원공-지자체 협약 누수를 줄이기

환경부의 2007년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남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69.9%로 전국 평균 92.1%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다. 도시지역의 일반 가정은 수도꼭지만 열면 수돗물이 팔팔 쏟아져 물 걱정이 없지만, 일부 섬지역에서는 여전히 지하수 등을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지역 수도요금도 m³당 762.8원으로 전국 평균 603.9원보다 1.26배가 높으며 생산원가 역시 전국 평균(715.4원)보다 비싼 960.3원에 달한다. 외국의 경우 미국 876원, 일본 1천7원, 영국 1천967원, 독일 3천1원, 프랑스 3천709원으로 우리보다 1.5~6.1배에 이른다.

또한 상수도 관로 노후화로 인해 땅속으로 새어나가는 누수율은 전남지역이 평균 25%로 나타나 전국

평균 12.8%보다 월등히 높다. 이에 따라 수도요금을 걷어들이는 유수율(有收率=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 중 관로에서 손실된 물을 제외하고 수도요금을 받는 물의 비율)도 64.8%로 전국 평균 81.1%에 비해 저조하다.

누수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진도가 48.3%로 가장 높고 고흥 47.2%, 구례 44.3%, 해남 41.8%, 함평 40.8%, 곡성 36.8%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목포 14.4%, 순천 19.6%, 광양 15.8% 등 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누수율 50%는 정수장에서 수돗물 100을 보낸다고 했을 때 중간 과정에서 물이 새 가정에 50만 도차하는 셈에서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각 지자체

는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을 위해 낡은 송수관 교체 등 보완사업을 펼쳐야 하지만 재정형편상 문제해결을 위한 집중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와 물관리 전문가인 한국수자원공사 간에 전략적인 제휴 사례가 늘고 있다.

2004년 충남 논산시를 시발로 해 전남에서는 나주가 지난해 3월, 함평이 지난 3월 수자원공사와 각각 '지방 상수도 위-수탁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위탁기간은 20년으로 인허가 계획 수립과 요금 결정, 요금 징수, 시설 소유권은 해당 지자체가 결정권자다. 운영권과 관리를 갖는 공은 ▲노후 수도관로와 수도 계량기 교체 ▲관로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배수지와 가압장 등 지방 상수도 시설물 개선 등을 통해 누수율 감소를 약속했다.

수자원공사는 나주시에 2027년까지 시설개선비 311억원 등 총

672억원을 투입, 누수탐사를 실시해 노후관 128km를 교체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24시간 콜센터 운영 등 시설 현대화를 통해 지난해 66.5%인 유수율을 2013년까지 8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함평역시 사업비 432억원을 들여 나산정수장 등 정수장 2개소와 상수도 관로 197km를 개선하게 된다.

무엇보다 수자원공사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법정검사 항목인 55개 항목보다 많은 250개 항목까지 수질검사를 확대 등 수질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을 통해 ▲시설개선에 갖는 비용을 ▲체계적인 수질 관리 ▲고객 만족도 개선 등을 기대하고 있다.

김성규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 고객협력팀장은 "상수도 누수율 감소를 위한 수질개선과 상수도 생산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함평·장흥에 친환경비료공장 들어선다

전남도 200억 규모 생산공장 건립 투자 협약

함평과 장흥에 국내 최고 수준의 친환경비료 제조공장이 들어선다. 전남도는 19일 도청 정약영실에서 박태현 효성오앤비(주)대표이사과 김철수(주)효성오앤비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 2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효성오앤비(주)는 함평군 학교농공단지 9천m²규모에 150억원을 투자해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장을 설립한다.

국내 유기질 비료시장 점유율 1위인 효성오앤비(주)는 함평공장을 통해 수도작 전용 유기복합비료인 '더비'와 과수전용 비료인 '프로파머' 등 연간 5만t 규모를 생산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주)효성오앤비는 장흥군 장평면 일대 1만1천m²에 55억원을 투자해 토양의 유기질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나오는 유익한 부식물질인 '휴머스'를 이용한 미네랄 비료 생산공

장을 설립한다. 국내 최초로 휴머스와 미네랄을 혼합한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생산한 (주)효성오앤비는 공장자동화 설비 전문업체인 (주)대풍엔지니어링이 신규로 투자한 사업체다.

전남도는 두 기업의 공장 유치로 7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들 기업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해당 기업제품 우선 구매는 물론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등을 활용하면서 나오는 유익한 부식물질인 '휴머스'를 이용한 미네랄 비료 생산공장을 설립한다. /최경림기자 ck@

여수해경, 백도는 우리가 지킨다

페어구·생활쓰레기 수거 등 정화 활동

여수 해양경찰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백도'의 환경 지킴이로 나섰다. 19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남 동부 내해(內海)구역 경비를 담당하는 여수해경 275함 승조원 20여 명은 최근 4박5일의 해상경비 기간에 삼산면 백도에 올라 곳곳에 널린 스티로폼과 그물, 플라스틱 용기와 불법 등 페어구와 생활쓰레기를 수거했다.

또 낚시배들이 섬에 불법으로 대기 쉽고 파도에 밀려나지 않도록 특 바위 곳곳에 걸어놓은 선박 안전경음기 200m가량을 제거하는 작업도 벌였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지난 1979년 12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호'로 지정된 백도는 자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과 상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인근 거문도 주민 일부만 섬 주변 200m 이내 해역에서 맨손어업이나 나잠(맨발 잡수), 배낚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의 통제외 여중이 다양하고 씨알이 굵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낚시 어선들이 대기 쉽도록 밧줄을 설치해 놓고 낚시꾼을 무단 하선시켜 각종 생활쓰레기를 바위섬 곳곳에 쌓아 있다.

전북 축제

22~23일 안도 노화도



전국 최대 전북 주산지인 안도 노화도에서 오는 22~23일 전북축제가 개최된다. '행복의 섬! 전북 물에 오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전북 특색 관매 행사를 비롯해 전북요리 시식대회와 전북 홍보관이 운영된다.

또 관광객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우렁잡 전북 선밭대회', '전북깨기 대회', '전북 kg 맞추기', '전북나미 및 전주기', '전북 깎깎깎', '전북 요리 및 전주기' 등이 마련돼 전북의 참맛과 멋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영양가 높고 싱싱한 전복을 평소보다 값싸게 살 수도 있다. /안도=정은기자 jechung@

여수시 이어 사업 시행자도

"시민 반대편 국동항 개발 포기"

여수시 국동항 해양관광문화 복합 단지 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 포기를 시사했다. 사업 시행자 측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사업의 특수목적법인인 다오오션시티(주)가 설립돼 박달포 지원 시설로 개발할 계획을 세우기 이전부터 다가는 어항사업의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며 "세계박람회 유치 확정에 따라 사업 부지가 박달포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돼 특별 협의를 받은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사업 시행자 측은 끝으로 자신들의 사업이 "여수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 줄 엄청난 기회"라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대해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투자할 의사가 있다"며 "이번 주까지 최종 시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사업 시행자 측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사업의 특수목적법인인 다오오션시티(주)가 설립돼 박달포 지원 시설로 개발할 계획을 세우기 이전부터 다가는 어항사업의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며 "세계박람회 유치 확정에 따라 사업 부지가 박달포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돼 특별 협의를 받은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사업 시행자 측은 끝으로 자신들의 사업이 "여수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 줄 엄청난 기회"라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전통 성년식 재현

'제 37회 성년의 날'인 지난 18일 해남항 교에서 옛 전통 성년식을 재현하는 성년례(成年禮)가 열렸다. 김금수 전 향교 전교의 주례로 거행된 이날 행사에는 지역 청소년 22명이 참여했다. /해남=제공

공인중개사: 강영희

☎ 0621364-8700
H.P 010-4608-3700

지역	소재지	면적(㎡)	건평(㎡)	층수
전남	해남	112940	19130	9층 11년
	함평	899277	82024	5층 7년
	곡성	105929	19110	7층 7년
	고흥	53110	42000	3층 9년 6월
	영광	112940	19110	7층 7년
	담양	28630	19150	19150
	장흥	18550	19150	19150
	보성	18550	19150	19150
	고흥	18550	19150	19150
	곡성	18550	19150	19150
전북	익산시	112940	19130	9층 11년
	정읍	112940	19130	9층 11년
	고성	112940	19130	9층 11년
	진안	112940	19130	9층 11년
	무주	112940	19130	9층 11년
	완주	112940	19130	9층 11년
	진성	112940	19130	9층 11년
	고성	112940	19130	9층 11년
	진안	112940	19130	9층 11년
	무주	112940	19130	9층 11년
전북	익산시	112940	19130	9층 11년
	정읍	112940	19130	9층 11년
	고성	112940	19130	9층 11년
	진안	112940	19130	9층 11년
	무주	112940	19130	9층 11년
	완주	112940	19130	9층 11년
	진성	112940	19130	9층 11년
	고성	112940	19130	9층 11년
	진안	112940	19130	9층 11년
	무주	112940	19130	9층 11년